

#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손혜인 (Hye In Sohn)\*\*

남영준 (Young Joon Nam)\*\*\*

### 초 록

기록관리학은 전통적인 기록학과 문서관리,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복합학적인 학문으로 재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록관리학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681편의 논문을 조사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학제성과 주제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학술지에 발표된 모든 논문으로부터 저자의 소속기관, 직업, 학문분야, 공저자, 그리고 주제 분야를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회지는 연구자 배경(소속 기관, 직업, 학문분야)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공동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각 학회지별 주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로 중심이 되는 주제 영역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s archives management is reestablished as an academic subject. This study presents the interdisciplinarity and the research trend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r the study, 681 articles from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5 is analyzed. In this articles, author's background (agency, job, discipline) and subject is extracted.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are used as major method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wo journals about researcher's backgrounds. Second, joint-research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majority of co-authors are belong to the university. Third, two journals show different research trend. Finally, each institution have different interest about specific subjects.

키워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공저자, 주제영역, 빈도분석, 네트워크분석  
records management,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trends, co-author, subject,  
cross-tabulation analysis, network analysis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과정(shyein92@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교수(namyj@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2월 24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3월 15일  
■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1.085>]

## 1. 서론

학문의 발전은 사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혹은 외생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록학 혹은 기록관리학(이하 기록학으로 통일)도 예외는 아니다. 기록학도 인류가 기록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체계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가각고를 비롯하여 조선 시대 승정원, 해방 이후 기록보존소와 같은 정부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오랜 기록문화 배경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승된 기록문화와 함께 학문적으로의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비롯하여 사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기록학은 2000년 공공기록물법에 기록연구사라는 전문직이 명시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써 그 수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국내 대학은 기록연구사를 양성하기 위한 독립 학과와 전공을 개설하여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록학이 학문적 기반을 갖추에 따라 기존 연구자들과 함께 기록학을 전공하는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는 관련 학회의 탄생과 기록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의 조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종이기반의 물리적 기록물이 디지털 기반의 전자 기록물화되어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록관리체계에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공기록법도 2007년 전면개정에 이르러 법 20조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는 기록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간주되어 이에 부응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와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록학의 학제적 연관성을 파악하고 기록학의 학문적 추세 변화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기록학 발전의 외생적 요인으로써 기술의 발달과 법의 변화, 사회적 요구와 이에 따른 기록학 발전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학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창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록된 모든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와 저자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학 분야의 주된 연구생산주체와 연구생산주체별 주된 연구주제, 연구생산에 대한 협력 형태를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외생변화요인에 따른 기록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영역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록학 분야의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도 수록되지 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기록학 분야의 연구들이 일부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이 각 학술지에 투고가 이루어진 시점의 소속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현재 시점의 저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기록학 분야의 인용분석과 기록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 2.1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기록학 관련 학회지를 통해 기록에 관련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행정학과 사학분야의 학회지에서도 기록과 관계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고자의 소속은 대부분 문헌정보학 혹은 기록학 분야의 연구자들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록학에 대한 연구동향 논문은 연구주제에 따라 기록학 전체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과 세부 주제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기록학 전체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최이랑(2015)과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기록학과 문헌정보학 계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학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학 계열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동향과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기록학의 세부 분야 중심의 연구를 진행한 논문도 존재한다. 기록학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2013)은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논문을, 김관준과 서혜란(2012)은 전자기록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소연(2011)은 전자기록을 다룬 논문을 분석하였고, 최재희(2011)는 기록물 평가에 관한 논문을 추출하여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동향을 빈도

분석 기법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특정 학술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소연(2013)은 디지털 보존에 관련된 연구를, 최정민과 김유승(2013)은 정보공개를 다룬 국내 논문을, 설문원(2012)은 기록 분류와 관련된 연구를 전수 조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제를 기준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 요소를 선정하였다. 김건 외(2013)의 경우 기록정보서비스의 주제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1개 영역의 세부 내용을 설문원(2008)의 연구를 참조해 작성하였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이 대상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23개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제 영역을 선정하였다. 강순애(2013)는 기간과 지역을 근거로 하여 주제 항목을 나누었고,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록관리 교과과정에 기반을 두고 주제 항목을 구분하였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의 경우 대상 논문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주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밖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주제를 추출한 논문도 다양하다.

기록학에서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해 연구동향을 조사한 논문으로 최이랑(2015), 김관준과 서혜란(2012) 그리고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의 연구가 있다. 최이랑(2015)은 UCINET6와 NetDraw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와 소속기관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김관준과 서혜란(2012)은 NodeXL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제 네트워크와 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문헌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여 주제 영역을 범주화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차원척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동향을 조사한 논문은 다양하다. 이수상(2010)은 4개의 주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공저빈도에 따른 공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박옥남(2011)은 UCINET6와 NetMiner3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와 소속기관 네트워크 지도를 표현하였다. 조재인(2011)은 NodeX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색인어 간의 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저자인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재윤(2008)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있다.

전체적인 학문 분야가 아닌 단일 학술지를 기준으로 한 논문도 있다. 강미희, 김정현(2014)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박희진(2014)은 국제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에서 발간된 연구 성과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연경(2011)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인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는 세부적인 연구주제와 분석대상, 분석기준에 대해 다양한 연구관점으로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전체적인 주제 영역과 함께 저자의 소속을 비롯한 생산성, 저자와 연구생산기관간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전체적인 학문분야가 아닌 단일 학술지를 기준으로 한 연구방법에 기반을 두어 우리나라 기록학 분야 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 창간호부터 최근호에 이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제영역과 학문적 배경, 논문생산에 대한 기관별 추이를 계량서지학적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이상의 국내 기록관리 분야와 문헌정보 분야 연구동향 중 일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록관리학 · 문헌정보학의 국내외 연구동향 개관

연구자	연구 주제	분석대상		분석기준					분석방법			
		학술지수	논문수	저자배경			공저자	주제	정량	네트워크	내용	지적 구조
				소속	직업	전공						
최이랑(2015)	기록관리	5	479	●	●			텍스트마이닝	●	●		
강순애(2013)	역사	8	31	●	●		●	기간·지역	●		●	
김건 외 3명(2013)	기록정보 서비스	6	374		●			연구 참조	●		●	
김판준, 서혜란(2012)	전자기록	7	161							●		●
이소연(2011)	전자기록	5	57	●	●		●	내용분석	●		●	
최재희(2011)	평가	4	33	●	●			내용분석	●		●	
김규환, 남영준(2009)	기록관리	3	374	●		●		연구 참조	●			
김규환 외 2명(2009)	기록관리	3	344					텍스트마이닝	●			
남태우, 이진영(2009)	기록관리	4	399				●	연구 참조, 교과과정	●			
장로사, 김유승(2009)	정보학	5	99		●	●	●	키워드	●			
이재윤 외 2명(2007)	기록관리	5	145					문헌 클러스터링		●		●
김희정(2005)	기록관리	4	333					저자클러스터링				●

## 2.2 학회지 분석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대상으로, 각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였다. 게재 논문의 검색과 수집은 DBPIA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논문 중 문헌목록과 같이 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와 저자가 불분명한 논문<sup>1)</sup>은 제외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30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기록학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7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간기는 2012년부터 연 2회에서 연 3회로, 2014년부터 계간으로 바뀌었다. 기록학연구의 간기는 2009년부터 연 2회에서 계간으로 바뀌었다. 기록학연구의 개간과 간기 축소 시기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록학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전체적인 간기 변화에 따라 두 학회지에 실린 논문 수는 <표 2>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포함된 681편의 논문은 중복된 수를 제외한 472명의 저자에 의해 게재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301명의 저자가, 기록학연구에는 231명의 저자가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만 투고한 저자는 전체 저자의 51%(241명)에 해당하였고, 기록학연구에만 투고한 저자는 전체 저자의 36%(171명)에 해당하였다. 두 학회지 모두에 투고한 저자는 13%(60명)이었다. 두 학회지는 기록관리학이라는 큰 주제면에서 유사하나 구체적인 저자와 주제의 분포에서 학회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학술지별 논문 게재 현황을 저자 기준으로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위의 학술논문 생산 현황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저자분석은 분석대상에 따라 연도별 저자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주제분석에서는 각 학술지의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분석에서는 소속기관과 직업, 학문분야, 공저로 항목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NetMiner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저기관 네트워크를 시각화

<표 2> 기록관리학 학술지의 연도별 논문 현황, 단위: 논문 수(편)

학술지 명	게재시기 및 편수 현황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기록관리학회지	논문수		17	17	16	16	17	12	16	20	20	18	24	29	29	25	29	305
	발행수		2	2	2	2	2	2	2	2	2	2	2	3	3	4	4	
기록학연구	논문수	15	19	21	18	23	17	23	18	22	34	28	26	24	33	29	26	376
	발행수	2	2	2	2	2	2	2	2	2	4	4	4	4	4	4	4	
합계	논문수	15	36	38	34	39	34	35	34	42	54	46	50	53	62	54	55	

1) 제외된 논문의 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26편, 기록학연구에서 72편으로 총 98편이 있다. 기록학연구의 경우 매 편마다 목록과 서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수가 많았다.

〈표 3〉 기록관리학 학술지의 연도별 저자 현황, 단위: 저자 수(명)

학술지 명	계재시기 및 편수 현황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기록관리학회지	논문수		24	23	21	21	19	15	28	36	37	28	34	46	56	59	67	514
	발행수		2	2	2	2	2	2	2	2	2	2	2	3	3	4	4	
기록학연구	논문수	16	23	22	18	28	17	24	18	26	40	31	34	39	45	46	41	474
	발행수	2	2	2	2	2	2	2	2	2	4	4	4	4	4	4	4	
합계	논문수	16	47	45	39	59	36	39	46	62	77	68	65	85	101	105	108	988

하였다. 주제 분석에서는 시기별로 변화하는 주제 추이를 빈도분석하고 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3. 저자분석

이 장에서는 각 학회지별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업·학문분야, 공저자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논문을 작성할 때 소속기관이나 직업과 같은 개인의 배경은 논문의 주제나 진행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속 기관과 직업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주제 분야가 한정적일 수 있으며, 논문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속 기관에 따라 기관 간 연계 연구 및 새로운 학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문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소속기관이나 직업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배경은 현시점으로 기술하지 않고 논문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기관명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장은 저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표 3〉의 저자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3.1 저자의 소속기관 분석

저자의 소속 기관 범주는 공공기관, 기록관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교육원 및 다소속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원과 대학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다른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록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법에서 지정한 기록관리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서 많은 논문이 생산되기 때문에 두 기관을 다른 기관들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그 밖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특수기록관,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학 내부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정책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과 달리 대학교의 성격·목적·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록관리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학 내부의 연구기관<sup>2)</sup>도 대학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대학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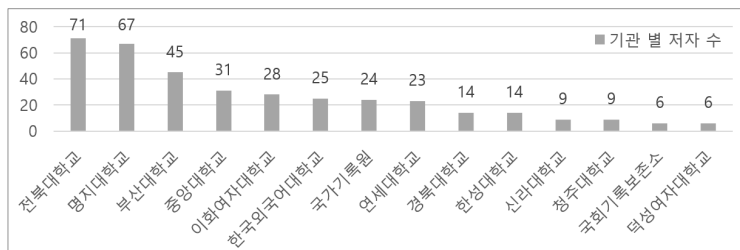
3.1.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투고한 저자의 소속 기관은 중복된 기관을 제외하면 130개이고, 이 가운데 대학은 55개이다. <표 4>는 구체적인 소속 기관을 범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에 소속된 저자가 78.8%(405명)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기록관리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5.6%(29명),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된 저자도 5.6%(29명), 공공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3.9%(20명) 순이었으며 대학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 수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림 1>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소속 기관별로 상위 14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북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대학에 소속된 저자가 게재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위 14개 기관에 포함된 12개 대학을 보면 대부분 문헌정보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이고,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학부에 문헌정보학과가 없고, 대학원에 정보·기록관리학과가 존재한다. 대학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에 속한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이다.

<표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저자의 소속기관

범주명	저자 수	비율(%)	논문에 게재된 기관 명칭(일부)
공공기관	23	4.5	강화군청, 경상남도 양산 교육지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사상구청, 외교통상부 등
기록관리기관	29	5.6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네덜란드 국가기록원
대학	405	78.8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연구기관	18	3.5	KT인프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회·단체	29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네스코, 일본기록관리학회, 네이비스시스템, 그린솔루스, 세미콘네트웍스, 이산티에스 등
교육원	-	-	-
다소속	10	2.0	-
계	514	100	-



<그림 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관 별 저자 수

- 2)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한국기술사연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이 대학 내부에 있는 연구기관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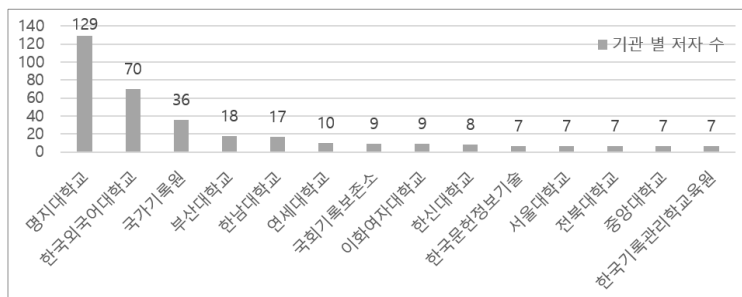
### 3.1.2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에 투고한 저자가 속한 기관은 중복 기관을 제외하고 137개였고, 그 중 대학은 50개였다. <표 5>는 구체적인 소속기관을 범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에 소속된 저자가 66.9% (317명)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록관리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9.1%(43명),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된 저자가 8.0%(38명), 공공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5.7%(27명) 순이었다. 하나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작성한 논문도 6.9%(33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기록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연결되었지만 소속은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림 2>는 기록학연구에서 소속 범주가 아닌 소속 기관별로 상위 14개 기관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저자의 약 50%(235편)가 상위 3개 기관인 명지대학교와 한국의국어대학교, 국가기록원에 소속되어있다. 상위 14개 기관에 포함된 10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와 한신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를 제외한 7개 대학에는 문헌정보학과가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경우 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가 존재한다. 대학 범주에 속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 한국문헌정보기술,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비중 또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5> 기록학연구에서 저자의 소속기관

범주명	저자 수	비율(%)	논문에 기재된 기관 명칭(일부)
공공기관	27	5.7	국가보훈처, 국립과천과학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원행정처, 삼척시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용산구, 육군 등
기록관리기관	43	9.1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대통령기록관, 몽골국가기록원
대학	317	66.9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연구기관	7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등
협회·단체	38	8.0	대한불교조계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미네소타 역사학회, 스위스은행가, UN, ICA 등
교육원	9	1.9	교양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다소속	33	6.9	-
계	474	100	-



<그림 2> 기록학연구지 기관 별 저자 수

### 3.1.3 저자의 소속기관 분석 결과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투고한 저자가 속한 기관은 중복 기관을 제외하면 220개였고, 그 중 대학은 78개였다. 소속 범주를 보면 두 학회지 모두 대학 분야에 소속된 저자가 게재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두 학회지에서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회지는 대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소속 범주 분포보다 기록학연구의 소속 분포가 다양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대학이 75.3%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 내외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기록학연구도 소속 범주 중 대학이 65.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기록관리기관이 8.6%였으며 다른 소속이 7.0%, 공공기관이 5.3%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하여 대학의 비중이 작았다. 두 학회지에서 대학구성원은 기록학 분야의 논문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대학 이외 기관의 비중 및 다양성은 기록학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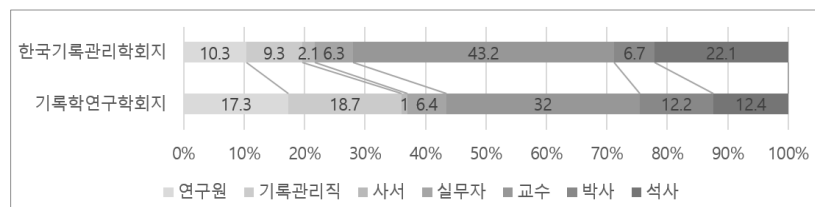
다만 기록학연구의 경우 논문의 50%가 세계의 기관에 소속된 저자로부터 집중 게재되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기관간 편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학회지의 소속기관을 비교

하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상위 14개 기관 중 11개 대학이 문헌정보학이 있는 대학으로, 문헌정보학이 중점 학문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록학연구는 상위 14개 기관 중 7개 대학만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대학이었다.

### 3.2 저자의 직업과 학문분야 분석

직업은 연구원을 비롯하여 기록관리직과 사서, 실무자, 교수, 박사, 석사로 구분하였다. ‘기록관리직’은 업무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록관리자, 보존기록관리자,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 보존전문가’ 등의 명칭(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pp. 31-32)과 전문요원의 다양한 명칭인 ‘Archivist, 기록연구사, 기록관리사, 기록관리전문가’ 등도 포함한다. 기록관리와 도서관 이외에 다른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실무자’로 분류하였다. 대학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 다수가 직장인이며, 이 경우 두 기관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보고 두 직업군을 모두 표기하였다.

〈그림 3〉은 학회지 별로 저자 직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소속 범주에서 대학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자의 직업 분포에서도 대학 범주에 소속된 교수



〈그림 3〉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의 저자 직업 분석(단위: %)

와 박사, 석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수직의 저자가 43.2%(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로 표기된 저자의 경우가 22.1%(118명)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대학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저자는 28%(150명)이었다. 기록학연구의 경우에는 저자의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교수신분의 저자가 32.0%(17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학 범주에 속하지 않은 연구원과 기록관리직, 사서, 실무자라는 직업의 저자가 43.4%(230명)로 조사되었다.

학문분야 분석 시, 학과 내 전공으로 기록관리학이 개설된 경우 기록관리학으로 학문을 한정지어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사학과에 포함된 원광대와 문헌정보학과에 포함된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를 기록관리 학문 분야에 포함하였다. 실무자나 연구원의 경우 그 당시 학문적 배경이 불분명하므로, 전공이 정확히 기재된 저자만을<sup>3)</sup> 대상으로 하였다. 같은 학문 분야이지만 학교에 따라 학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 이름보다는 학문의 대표적인 명칭에 기반을 두어 학문 분야를 조사하였다. 공학의 경우 세부 학문 분야로 구분할 경우 그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으로 간주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15개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기록학연구의 경우 14개 학문 분야를 포함한다. 두 학회지의 공통 학문 분야에는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 사학, 컴퓨터학, 인문학, 박물관학, 정치학, 중국학, 교육학 및 문학이 있다. 이 밖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공학 및

예술학, 경영학, 보건 및 의학, 행정경찰학이 있다. 기록학연구의 경우 사회학과 태권도학, 법학, 이태리학 등이었다. 빈도가 높은 상위 8개 학문 분야로는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 사학, 공학, 인문학, 박물관학, 예술학 및 정치학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 사학, 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 분야의 경우 빈도 차이가 미미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이 각각 184명(46.3%)과 173명(43.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에서 이루어진 저자의 소속기관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논문을 가장 많이 투고한 상위 14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문헌정보학과 존재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문헌정보학이 중심 학문분야로 나타났다. 기록학연구의 경우 32명(10.2%)인 문헌정보학 보다는 201명(64.0%)인 기록관리학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학은 47명(15.0%)로써 문헌정보학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기관과 직업 분석 결과에서 기록학연구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넓은 분포를 보였고 전체 직업 중 실무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 3.3 공저자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분석

저자 분석에서 학회지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저자 유형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공저자 투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공저자의 형태로 투고된 논문은 <그림 4>와

3)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전체 중에서 77.2%에 해당하는 397명을, 기록학연구에서는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31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제 간 연구의 증가추세와 연구실적 계량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305편의 논문 중 42.3%(129편)가 공저자 연구로 게재되었으며, 기록학연구의 경우 376편의 논문 중 16% (60편)만이 공저자 연구로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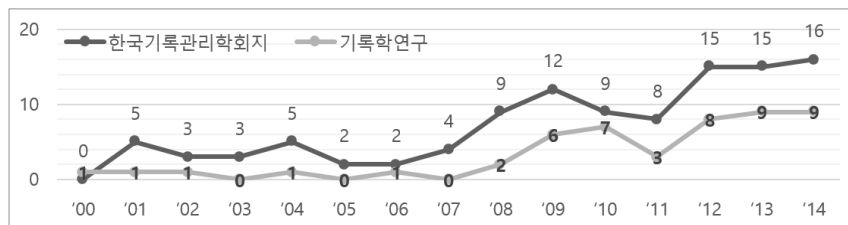
공저자의 빈도분석은 공저자 수와 유형, 소속기관으로 나누어 논문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소속기관의 경우 앞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유형은 따로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학회지에 수록된 공저 유형을 분석한 결과, 2명의 연구자가 수행한 공저의 형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2명의 공저형태로 게재한 논문은 전체 공저논문가운데 65.1%(84편)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해 기록학연구는 2명의 공저형태로 수록한 논문이 80.0%(48편)

로 조사되었다.

공저자의 유형은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지도' 관계를 비롯하여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학생 혹은 교수끼리 공동연구를 수행한 동일 '대학' 관계, 동일 회사 및 기관 출신의 '동료' 관계, 같은 학회나 협회 출신의 '학회·협회' 관계, 특정 단체 등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한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연구' 관계, 관계를 명확히 알기 힘든 '기타' 관계로 구분하였다. 유형의 우선순위는 지도, 대학, 동료, 연구, 학회 및 협회, 기타 순으로 두었다. 번역자는 공저자에서 제외하였다.

〈표 6〉은 공동연구자 유형을 정리한 결과이다. 두 학회지 모두 '지도' 유형의 연구가 각각 63건과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연구' 유형이 각각 20건과 10건, '대학' 유형이 각각 12건과 8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공저자 수 변화 추이(단위: 편)

〈표 6〉 공동연구자 유형

(논문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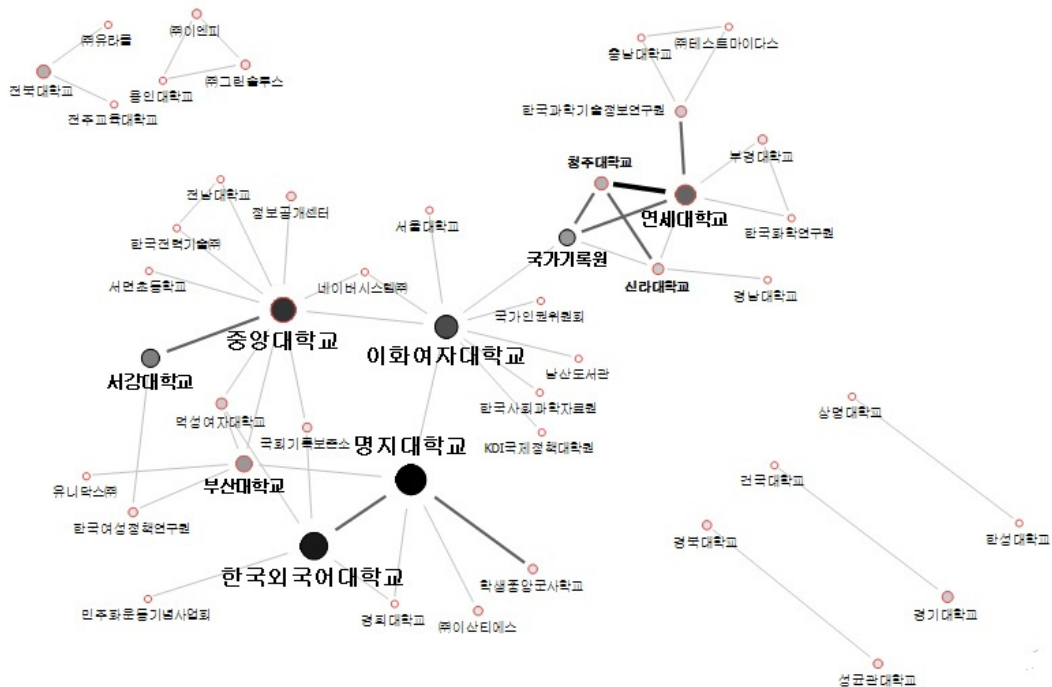
	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합계	
대학	12	9.3	8	13.3	20	10.6
동료	10	7.8	4	6.7	14	7.4
연구	20	15.5	10	16.7	30	15.9
지도	63	48.8	24	40.0	87	46.0
학회·협회	5	3.9	3	5.0	8	4.2
기타	19	14.7	11	18.3	30	15.9
총합계	129		60		189	

이 가운데 '지도' 유형과 '대학' 유형은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유형으로, 절반이 넘는 연구자가 이 두 개의 유형에 포함되었다. 대다수의 공동 연구는 대학 범주 아래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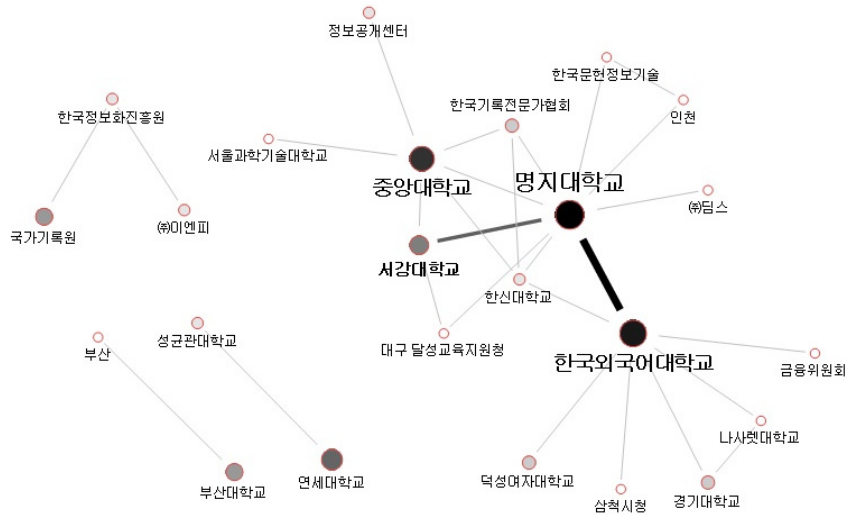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두 학회지 모두 대학이 중점 생산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저자의 기관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위해 기타, 연구 그리고 학회 및 협회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세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을 개별적인 노드(node)로 두고 기관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최진호, 김희수, 임남규, 2011). 각 학회지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두 그림은 스프링형 레이아웃 알고리즘 중 Kamada & Kawai 방식을 사용해 노드 간의 경로거리를 배치하였다. 각 노드의 크기는 그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게재한 논문 수에 비례하며, 한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는 그 기관이 몇 개의 기관과 공저 연구를 수행하였는지를 나타낸다. 링크의 두께는 두 기관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두 기관이 함께한 공저 횟수에 비례한다. 두 학회지의 공저 기관 네트워크를 보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네트워크 구조가 기록학연구의 네트워크 구조보다 복잡하다. 이는 기록학연구에 게재된 공저논문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 공저연구를 제출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그림 5>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공저 기



<그림 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공저 기관 네트워크 구조



〈그림 6〉 기록학연구 공저 기관 네트워크 구조

관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중심기관은 많은 논문을 생산한 기관과 기관간 공저 연구를 많이 수행한 기관, 다른 기관과의 의존도가 높은 기관이다. 중심기관은 명지대학교를 비롯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국가기록원과 서강대학교 순으로 논문을 많이 게재하였다. 각 노드에 연결된 링크 수를 고려하면 중앙대학교는 10개 기관을 비롯하여 이화여자대학교는 9개,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6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5개, 국가기록원과 신라대학교는 4개 기관과의 공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 간의 의존도는 청주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과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와 신라대학교 간의 의존도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공저연구에서 중심기관은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다. 〈그림 5〉를 보면 중심 기관과 연결된 중심 네트워크 이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독립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관은 단편적인 한두 편의 공저연구만을 진행한 기관으로, 기관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그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여러 기관과 공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함께 연구를 진행한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대학이다. 이화여자대학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같이 연구를 진행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만이 대학이다. 이처럼 대학이 중심기관이지만 대학과 그 이외 기관 간의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대학 이외 기관과의 공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공저 연구는 주로 연세대학교와 청주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

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의 대학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은 기록학연구에서의 공저기관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노드의 크기에 따라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순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링크 수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9개 기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7개 기관과, 중앙대학교의 경우 6개 기관과, 한신대학교의 경우 4개 기관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관 간의 의존도는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명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간의 의존도 순으로 높았다.

기록학연구의 경우에는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중심기관이었다. 기록학연구에서도 중심기관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네트워크가 존재하였으나 기관의 수와 게재된 논문의 수, 네트워크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대학과 대학 이외 기관 간의 관계도 많이 나타났으나 의존도도 작았다.

두 학회지 간의 공통적인 중심 기관은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중앙대학교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위의 세 기관 이외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도 중심기관으로 나타난다. 공저자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공저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이외에 다른 기관 간의 연구도 대학이 중심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도 대학 간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4. 주제분석

기록학은 법률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법은 기록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이전부터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점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제영역을 법에 기반하여 선정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를 두어 14개 항목으로 주제를 구분하였다. 주제의 경우 논문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연도별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다.

### 4.1 법령분석과 주제요소 추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6장 삭제,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하여 생산, 관리, 비밀기록물, 공개·열람·활용,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경우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일차로 제시한 항목은 개념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항목을 각 장에 포함된 조의 내용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 항목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특수기록관과 관련된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 항목에는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을 분류하였고 전통적인 기록관이 아닌 MLA나 라키비움과 같은 기타 기관에 대해 연구한 논문도 '기록물관리기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생산' 항목에는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편철과 관련된 논문을 분류하였다. '비밀기록물'과 '민간기록물'에는 각각 비밀기록과 민간기록에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였다. '공개·열람·활용' 항목에는 공개 여부 분류, 비공개 기록의 열람 및 활용에 관한 논문을 분류하였다.

제5장에 근거하여 만든 '관리' 항목에는 전자기록물 및 다양한 기록물의 관리, 회수, 폐기, 평가, 시설, 기록매체, 보안, 보존 및 복원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 항목을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전자기록물' 항목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1항」에 포함되는 전자기록물의 관리, 표준화, 보존, 활용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보존' 항목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분류하였다. 이 밖에 5장에 포함된 관리, 폐기, 평가, 시설, 기록 매체 등의 조항에 관한 논문은 '관리' 항목에 분류하였다.

제9장에 근거하여 만든 '표준화·전문화' 항목도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준, 기록일반 그리고 전문화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기록일반' 항목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의 기

록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였다. '전문화' 항목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논문을 분류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항목을 만들었다. 이외에 추가 항목으로 '역사'를 만들어 과거 문서를 분석하는 논문을 분류하였고, 그 주제가 기록과 관련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14개 주제 영역은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하여 기록물관리기관, 생산, 전자기록물, 관리, 보존, 비밀기록물, 공개·열람·활용, 표준, 기록일반, 전문화, 민간기록물, 역사, 기타 항목이다. 각 항목별 키워드와 참고조항은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요 주제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법률 상 상위조항에 근거하여 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법」을 참고한 '대통령기록물' 항목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sup>4)</sup>에 근거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4.2 빈도분석

두 학술지 전체의 주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관리, 공개·열람·활용 그리고 기록일반에 해당하는 논문이 각각 84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다음으로 전자기록물이 73편, 표준이 66편 순이었다. 비밀기록물과 관련된 논문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주제를 보면 공개·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표 7〉 주제분류 14개 항목 별 키워드 및 참고조항

항목명	키워드	참고조항: 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법」	
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특수기록관, MLA, 라키비움	제2장(기록물관리기관) 제5장 중 28조	
생산	기록물 생산의 원칙과 의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출처주의, 전자레코드, 장서개발, 기술요소, 기록물처리일정표, 기록물분류기준표, 업무모형, 수집정책, 아카이브 구축방안, 기록화 현황, 시소러스, BRM	제4장(기록물의 생산)	
관리	전자 기록물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전자화), 전자기록물의 관리(전자기록생산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빙(웹 아카이빙), 전자우편문서, OAIS, ERMS, DIRKS, 데이터세트	제5장 중 20조
	관리	기록물관리의 원칙, 이관, 이중보존, 간행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의 관리,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회수·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매체 및 용품 등의 표준 및 규격, 기록관리시스템(RMS, 레코드키퍼시스템), 평가제도·모델	제5장 중 21~27, 29조
	보존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보존·복원 기술의 연구 개발, 보존환경분석	제5장 중 30조
비밀기록물	비밀기록물 관리와 원칙	제7장(비밀기록물의 관리)	
공개·열람·활용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기록물공개심의회, 보존기록물의 활용, 기록정보서비스와 탐색도구의 평가모형, 지식공유, 기록정보서비스 <sup>5)</sup> (finding aids, 정보공개, 견학, 기록물전시, 홍보 프로그램, 책자발간), FDLP(연방정부 간행물 기타 도서관 제도)	제8장(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표준화 전문화	표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EAD, EAC, 표준화, 메타데이터 표준 설계, 특정 유형 기록의 체계화 방안, 기록화 전략 수립	제9장 중 39조
	기록 일반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개선, 기록관리학 및 특정 기록의 현황·동향분석·발전상황 개선방안, 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행정·정책·제도·법·규칙·체계구축	제9장 중 40조
	전문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교육, 훈련과정, 아키비스트 윤리	제9장 중 41~42조
민간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뉴스스크립트, 로컬리티 기록화, 집단기억, 사회적기억, 개인기록물, 공동체 아카이브	제10장(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역사	역사서에 대한 비평, 역사적 사건과 기록 간의 관계 분석	-	
기타	-	-	

〈표 8〉 학회지별 주제 빈도분석

단위(편, %)

항목명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학연구		합계	
대통령기록물	16	5.2	10	2.7	26	3.8
기록물관리기관	24	7.9	30	8.0	54	7.9
생산	30	9.8	20	5.3	50	7.4
전자기록물	36	11.8	37	9.8	73	10.7
관리	28	9.2	56	14.9	84	12.3
보존	17	5.6	6	1.6	23	3.4
비밀기록물	1	0.3	2	0.5	3	0.5
공개·열람·활용	45	14.8	39	10.4	84	12.3
표준	21	6.9	45	12.0	66	9.7
기록일반	40	13.1	44	11.7	84	12.3
전문화	19	6.2	20	5.3	39	5.7
민간기록물	14	4.6	37	9.8	51	7.5
역사	10	3.3	27	7.2	37	5.5
기타	4	1.3	3	0.8	7	1.0
	305	100	376	100	681	100

5) 이영숙(2007)의 연구에서 기록정보서비스 항목 참조.

람·활용, 기록일반, 전자기록물, 생산, 관리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기록학연구의 경우 관리, 표준, 기록일반, 공개·열람·활용, 전자기록물과 민간기록물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표 8〉에서 학회지별로 집중 투고되는 주제를 알 수 있지만 새로운 주제와 소멸되는 주제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별 주제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회지의 연도별 주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 4.2.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연도별 주제 변화는 〈표 9〉와 같다.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는 생산과 전자기록물, 기록일반 분야이다. 보존 분야는 과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에 이르러서 관련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창간 후 5년간 꾸준히 보존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4편의 관련 논문만을 게재하였다.

이에 비해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제는 공개·열람·활용 분야이다.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공개·열람·활용 영역의 경우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이 영역에 관련된 연구는 2006년부터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2008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연구들이었다. 이후 2014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논문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문도 대통령 기록관이 착공된 2013년 이후로 소폭 증가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주제는 민간기록물 분야이다. 2012년에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논문이 생산되었다.

〈표 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연도별 주제 변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편)
대통령기록물	1	1				1	1		1		1		4	1	5	16
기록물관리기관		1	2	2	1		2	5			1	5	1	1	3	24
생산		2	3	1		3		2	4	3	2	2	2	4	2	30
전자기록물	2	4	3	1	7		3	1	1	2	2	4	2	4		36
관리		1	1	1	1	1	1	2	2	2	5	5	2	2	2	28
보존	3	3	2	2	3					1		1	1		1	17
비밀기록물						1										1
공개·열람·활용	2		1			3	3	4	5	3	1	4	5	7	7	45
표준		2			1				3	3	3	3	1	3	2	21
기록일반	4	1	2	7	1	1	3	3	3	3	1	1	7	2	1	40
전문화	3	1		1	1	1	1	2	1	1	2	2	2		1	19
민간기록물					1			1			5	1	1	1	4	14
역사	2	1	1	1		1	2						1		1	10
기타			1		1						1	1				4

〈표 10〉 기록학연구 연도별 주제 변화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편)
대통령기록물		1	1						2	2			1	1		2	10
기록물관리기관	2	4		3	3	2	2	1	1	1	1	2	1	3	3	1	30
생산	1	2	2	3	3		1	3	1	1		2		1			20
전자기록물	1		3	2	2	1	5	3	2	6	3	3		3	2	1	37
관리		3	7		4	3	9	3	8	3	3	1	2	5	3	2	56
보존	2		1	1									1	1			6
비밀기록물										1	1						2
공개열람활용		3	2		1	2	2	4		3	4	2		7	4	5	39
표준	1		2	2	1					3	6	11	6	2	6	5	45
기록일반	2	1	2	1	6	4	3	2	3	7	5	2	2	2		2	44
전문화	5	2	1	5		1	1			1	1	1	1			1	20
민간기록물									2	3	2	2	9	6	7	6	37
역사	1	3		1	3	4		2	1	3	2		1	2	3	1	27
기타									2						1		3

#### 4.2.2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의 연도별 주제 변화는 〈표 10〉과 같다. 연구자들은 전자기록물과 기록일반 영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관리와 역사에 관한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역사에 관한 논문을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많이 게재하였다. 전문화 영역은 창간 후 4년 동안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그 이후로 관련 논문이 크게 감소하였다.

관련 논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주제는 표준과 민간기록물 분야이다. 표준 영역은 2009년 이전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기록물의 경우 2008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주제 빈도분석에서도 5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민간기록물 관련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주제 빈도 분석에서는 외생변화요인에 따른 학회지별 공통점이 두드러졌고, 두 학회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중심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3 네트워크 분석

주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제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각 주제별로 3회 이상 관련 논문을 게재한 기관으로 제약을 두고 two-node 네트워크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3편미만으로 관련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해당 주제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만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한을 두었다. 주제와 기관을 개별적인 노드로 설정하였으며 주제 노드는 흑색 도형으로, 기관 노드는 백색 도형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은 각 학회지별 주제와 기관 간의 네트



를 제외하였다. 나머지 11개 주제 요소를 전부 다루고 있는 기관은 없었으며,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은 전북대학교이었다. 전북대학교는 기록과 보존 요소를 제외한 9개 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은 명지대학교로 보존, 대통령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전문화 요소를 제외한 7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산대학교는 생산과 전문화, 민간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5개 주제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중앙대학교는 관리와 표준, 공개·열람·활용, 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5개 주제요소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밖에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각각 4개 주제요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 이외의 기관에는 기록물관리관 유형에 속하는 국회기록보존소와 국가기록원, 연구기관에 속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협회·단체에 속하는 세미콘네트웍스와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3개 주제(전자기록물, 기록물관리기관, 보존)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나머지 기관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연구만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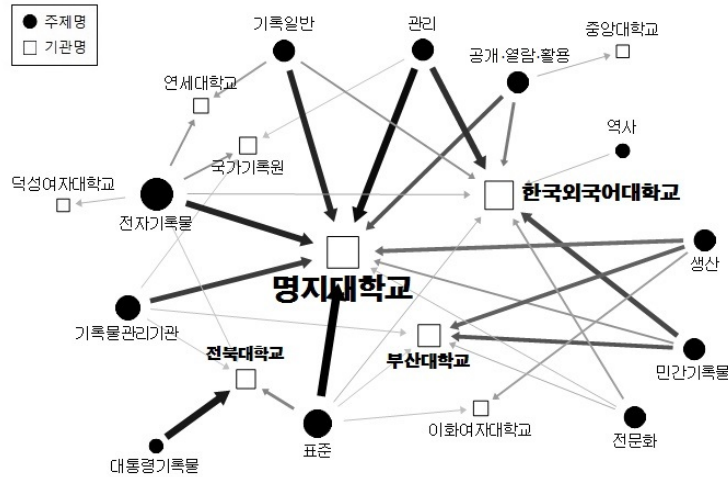
주제 노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록일반을 비롯하여 전자기록물, 기록물관리기관, 관리 영역을 각각 6개 기관에서 연구하였다. 명지대학교는 이 네 개 주제를 모두 연구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기록일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전자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연구하고, 관리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중심적

로 연구하고 있다. 이 밖에 생산에 관련된 논문은 부산대학교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논문은 전북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고 있다.

〈그림 8〉은 기록학연구에서 기관과 주제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14개 주제 요소 중 보존과 비밀기록물, 기타 요소를 제외하였다. 명지대학교가 가장 많은 주제를 연구한 기관으로 11개의 모든 주제 요소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문화와 생산, 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 요소를 제외하고 7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개·열람·활용, 역사, 전자기록물, 관리, 전문화 및 기록일반이라는 6개 주제에 관해 연구하였다.

주제 노드를 보면 6개 기관이 표준 영역을 연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명지대학교에서 표준 영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공개·열람·활용과 전자기록물, 기록일반, 민간기록물은 각각 5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공개·열람·활용과 민간기록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전자기록물과 기록일반은 명지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9〉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서 5편 이상 관련 논문을 게재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총 14개 주제 중 보존, 비밀기록물, 기타 요소를 제외한 11개 주제를 노드로 설정하였다. 11개 주제를 모두 다룬 기관은 없었고, 명지대학교가 가장 많은 주제에 관하여 논문을 게재하였다. 명지대학교는 대통령기록물과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주제 요소를 다루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기록물관리기관과 생산, 대통령기록물을 제외한



〈그림 9〉 두 학술지에 나타난 기관과 주제 간의 네트워크 구조

8개 주제 요소를 연구하였다. 부산대학교는 기록물관리기관과 민간기록물, 생산, 전문화, 표준 등 5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북대학교는 기록물관리기관과 대통령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표준 등 4개 주제를 다루었다. 대학 이외 기관은 국가기록원이 유일하였으며 관리와 기록물관리기관, 전자기록물의 3개 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은 전북대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역사영역은 한국의국어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전자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에서는 공개·열람·활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주제 노드를 보면 전자기록물은 가장 많은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주제로써 6개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표준영역은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록물관리기관 영역은 4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학회지별 주제 빈도분석에서 관리, 공개·열람·활용, 기록일

반과 관련된 논문이 생산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주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물과 표준, 기록물관리기관 영역에 관한 논문이 기록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관련 주제 영역에 게재한 논문 횟수를 기준으로 단편적인 연구를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단순 빈도분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관리, 공개·열람·활용, 기록일반 주제 요소의 경우 한 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5회 이상 관련 주제를 게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면 전자기록물과 표준 영역 주제의 경우 특정 기관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배경, 공저자, 논문 주제

의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 학문 분야의 주요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두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총 681편의 논문을 수집 및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회지는 연구자의 배경 가운데 소속 기관과 직업, 학문 분야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소속 범주에서 대학이 절대적 생산성을 보이나, 개별 기관별 분석에서 모든 대학이 유사한 생산 분포를 보였다. 저자의 직업분포는 대학 범주에 소속된 직업(교수, 석사, 박사)에 집중되어 있고,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이 중심학문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 『기록학연구』의 경우 소속 범주에서 대학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나 타 기관의 생산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개별 기관별 분석에서는 특정 기관(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기록원)이 절대적 생산성을 보였다. 저자의 직업분포는 대학 범주에 소속된 직업의 비중과 그 이외 실무 분야에 소속된 직업의 비중이 유사하고, 기록관리학과 사학이 중심학문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동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기록학연구』보다 공동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대학구성원간의 공동연구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셋째, 기록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는 전자기록물과 기록일반 영역이었으며, 최근에 공개·열람·활용과 민간기록물 영역의 연구도 증가추세이다. 다만, 각 학술지 별로 우세한 주제 분야와 축소하는 주제 분야는 차이가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는 보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기록학 연구에서는 전문화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민간기록물에 관련된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기록학연구에서 2배 정도 많이 게재되었다.

넷째, 주제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자기록물과 표준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논문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 두 학술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학술지의 주제적 특성과 발전되는 주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저자의 소속 범주 중 대학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연구의 다수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산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록학 분야의 연구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http://dx.doi.org/10.16981/kliss.45.4.201412.457>

- 강순애 (2013).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417>
- 김판준, 서혜란 (2012).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전자기록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9-55.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http://dx.doi.org/10.4275/kslis.2005.39.3.207>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박옥남 (2011). 정보조직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47-267.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3.249>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7-315.  
<http://dx.doi.org/10.16981/kliss.41.2.201006.297>
-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 이재운. (2008). 연구자의 투고 학술지 현황에 근거한 국내 학문분야 네트워크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5(4), 327-345.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4.327>
-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http://dx.doi.org/10.4275/kslis.2007.41.1.345>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2.367>

조재인 (201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4), 65-83.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065>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3(1), 147-177.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최진호, 김희수, 임남규 (2011). 기술예측을 위한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지능정보연구, 17(4), 227-240.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경기: 아세아문화사.

Nagarkar, S. P., & Kumbhar, R. (2015). Text mining: An 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under the subject category 'Information Science Library Science' in Web of Science Database during 1999-2013. Library Review, 64(3), 248-262.

<http://dx.doi.org/10.1108/LR-08-2014-0091>

Singh, K. P., & Cander, H. (2014). Publication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Management, 35(3), 134-149. <http://dx.doi.org/10.1108/LM-05-2013-003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26호, 2015.3.3.,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Cho, Jane (2011). A study for research are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network tex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65-83.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065>

Choi, Jeo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173-19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Choi, Jinho, Kim, Heesu, & Im, Namgyu (2011).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technology forecasting.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17(4), 227-240.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1), 147-177.
- Chung, Yeon-Kyoung (2011). 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367-39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2.367>
- Kang, Mi-Hee, & Kim, Jeong-Hyen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http://dx.doi.org/10.16981/kliiss.45.4.201412.457>
- Kang, Soon-Ae (2013).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41-6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199-22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417-43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417>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17-23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07-224. <http://dx.doi.org/10.4275/kslis.2005.39.3.207>
- Kim, Pan Jun, & Shu, Hye-Ra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of electronic records research in Korea using profiling.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2(2), 29-55.
- Lee, Jae-Yun (2008). Analyzing the network of academic disciplines with journal contributions of Korean resear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4), 327-345.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4.327>

- Lee, Jae-Yun, Moon, Ju-You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345-372.  
<http://dx.doi.org/10.4275/kslis.2007.41.1.345>
- Lee, Soo-Sang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97-315. <http://dx.doi.org/10.16981/kliss.41.2.201006.297>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1(2), 7-31.
-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3(2), 247-28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7(2), 73-94.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4(4), 99-1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Park, Ok Nam (2011). Knowledge structures in knowledge organization research: 2000-2011.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47-267.
-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2013).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the science of evidence & memory*. (3rd ed.). Seongnam: The Asian Culture Press.
- Seol, Moon-Won (2008). A study of strategic planning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249-271.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3.249>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2(3), 203-232.